



연합뉴스 축제 한마당, 파업 한달 맛이 문화제 열려

#연합뉴스바로세우기

연합뉴스 파업 한달 콘서트

연합뉴스 노조 파업 한달을 맞아 공정보도의 굳은 의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 문화제를 열었다. 연합뉴스 가족 및 시민 여러분, 한 판 놀아 볼까요? ^^

2012년 4월 18일(수) 오후 6시 30분
청계천 한빛광장

초청공연: DJ DOC, 노라조, MC스나이퍼, 꽃다지

★ 외부인사 응원: 조국, 김미화, 권해효, 변영주

★ 조합원 공연:

- 공평동 호랭이 밴드 신이 내린 손가락?
- 곱창단 들을수록 졸깃한 목소리
- 춘사마 차력단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

★ 사진전 및 뽀~나는 놀이 행사

입장료 풍!짜!

주최: 한국언론노동조합연합뉴스지부
서울중구수하동67/전화398-3620~2/팩스398-3630

연합뉴스 노조가 파업 한달을 맞아 18일 저녁 공정보도를 향한 굳은 의지를 함께 나누는 문화제를 개최한다.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열리는 이번 문화제에는 연합뉴스 가족은 물론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파업 돌입 한달이 넘었지만 우리는 지치기는커녕 더욱 강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있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국민의 뉴스통신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제는 조합원 공연, 유명가수의 초청공연과, 유명인사들의 지지발언, 사진전 및 놀이행사 등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신이 내린 손가락’으로 불리는 박지호, 이상현, 배영경 조합원이 결성한 ‘공평동 호랭이 밴드’는 파업을 앞두고 작사작곡한 ‘피로 쓴다’를 정식으로 선보인다.

들을수록 졸깃한 목소리를 지향하며 백중현, 백나리 조합원 등이 구성한 혼성 8인조 아카펠라 팀인 ‘곱창단’은 명분과 원칙으로 똘똘 뭉친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를 노래

로 표현할 예정이다.

박정찬 사장의 버티기에 맞서 체력을 단련해 온 강훈상, 강영두, 김호준, 노재현 조합원이 결성한 ‘춘사마 차력단’도 괴력을 뽐내며 노조의 투쟁의지를 재확인한다.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각계 유명인사들도 문화제를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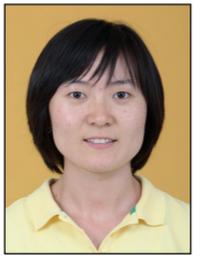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인인 변영주 감독은 직접 문화제를 찾아 공정보도를 위한 싸움에 나선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조국 서울대 교수, 방송인 김미화, 배우 권해효는 영상메시지로 만나볼 수 있다.

유명가수들의 공연은 이번 문화제를 노조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잔치판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DJ DOC, MC스나이퍼, 노라조와 민중가요의 구심점인 꽃다지는 열정적인 공연으로 청계천변을 달굴 예정이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지난 한달간 파업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이 개최되고, 문화제의 마지막 행사로는 박정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풍선터트리기 게임이 진행된다.

“선후배가 함께 재미있게 노는 자리 기대하세요”



이번 파업 콘서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치 않는 조합원들이 있다. ‘문화제 준비실무단’으로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는 송진원·임형섭·안홍석·김은정·배영경 조합원이 그들이다.

실무단장인 송진원 조합원을 중심으로 뭉친 이들은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주말도 반납한 채 일주일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실무단은 조합원을 비롯한 연합뉴스의 모든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찬 사장 어록 앙케트’와 관객이 조별로 참여하는 ‘풍선 터뜨리기’는 실무단이 야

심 차게 준비한 코너로, 재미를 선사해 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사내 곳곳에 나붙은 이번 콘서트의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었다. 그래픽뉴스팀 박영석 조합원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 포스터는 언론노조 각 지부와 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유관단체에도 배포됐다.

이들은 지난 주말 종로와 명동 등 변화가 바닥에 포스터를 붙이려다 노점상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송 조합원은 “박정찬 사장 덕분에 별일을 다 해본

다”면서도 이번 콘서트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실무단원들은 특히 ‘공평동 호랭이 밴드’와 ‘곱창단’, ‘춘사마 차력단’ 등 조합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무대가 기다려진다고 입을 모았다.

송 조합원은 “무겁지 않고 즐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부장급 선배부터 수습까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재밌게 놀다 가시라”라고 전했다.

평균나이 39세 ‘춘사마 차력단’

한국 언론 사상 최초로 평균 나이가 마흔을 목전에 둔 언론인 차력단이 18일 연합뉴스 노조 문화제에서 선보인다.

단장을 맡은 연합뉴스 TV파견 강훈상 조합원과 정치부 강영두·김호준 조합원, 북한부노재현 조합원이 그 주인공이다.

강훈상 조합원이 차력단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했고 강영두·김호준 조합원이 술김에 합류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노 조합원은 강 단장에게 “선배, 잘 돼 가나요?”라고 물었다가 캐스팅되는 행운을 안게 됐다.

그러나 강 단장은 “쇄도하는 지원자들을 상대로 실기시험을 봤다. 기본 체력과 과감성, 도전정신 위주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발했다”라며 주먹구구식 단원 모집설을 반박했다.

차력단원들은 그동안 바쁜 파업 일정 때문에 단체연습은 하지 못했으나 집에서 팔굽혀펴기 10분에 300개를 목표로 기초체력 쌓기에 몰두했다.



천상의 소리란 이런 것...연합뉴스 아카펠라 그룹 '곱창단'

연합뉴스 파업 한달 맞이해 열린 축제에 '곱창단'이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곱창단은연합뉴스조합원 9명으로 구성된 혼성 아카펠라 그룹이다. 이번 파업축제를 대비해 전격 창단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JYP의 아성에 도전하는 JHP 소속 신생 그룹이다.

쫄깃쫄깃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팀이름을 '곱창단'이라고 지었다고 이용석 조합원이 설명했다.

대학시절부터 공연계의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던 백중현 단장에게 스카우트된 8명의 단원들은 지난 5일간 '쫄깃하게' 조련됐다.

이들은 종로구 일대 노래방을 연습 스튜디오로 삼아 실력을 갈고 닦았다. 백 단장은 막 개업한 최신 노래방 VIP룸을 4시간 동안 1만5천에 섭외하는기획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여성 테너를 선보이는 백나리 조합원은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노래방에서 노래가 아닌 '악'만 써봤다는 최동우 조합원은 "박치를 극복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며 도전 의지를 불태웠다. 베이스 파트를 맡은 전재권 조합원은 "베이스 역할대로 곱창단을 위해 확실히 깔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백중현 단장은 연일 계속되는 조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각오를 묻는 말에 "아무 생각 없다"고 담담해했다.

곱창단은 IT개발부의 백중현, 최동우, 전재권, 김동욱 조합원, 제작개발팀 조미나, 이용석 조합원, 국제뉴스3부 배영경 조합원, TV파견 보도국 정치부 백나리, 김동규 조합원 등으로 구성됐다.



☞ 1면에 이어

이들은 10분간 10여 가지의 차력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극비에 부쳐진 상태다. 이들은 빨랫줄, 각목, 청테이프, 스타킹 등 재료만 살짝 연합뉴스노보에 공개했다.

차력단원들의 가족들은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 차력단원은 "아이들 교육상 모방 우려가 있어서 가족들이 온다는 것을 막았다"고 귀땀하기도 했다.

강 단장은 "연합뉴스 파업 동력이 춘사마 차력단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차력쇼를 조합원의 엄중한 명령으로 알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평균 나이 39세의 차력단원들은 이날 행사 복장으로 레슬링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강영두 조합원은 "애초 노조 내부 행사로 준비했으나 파업콘서트 때문에 돌연 대외적인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차력단원은 이번 공연이 성공리에 끝날 경우 전국 순회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단장은 "입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생계로 삼으려 한다"며 "단, 뉴스통신진흥법상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하게 법리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석구석

-고객지원팀.제작개발팀

정보통신국 산하의 두개의 팀 중 하나인 고객지원팀은 회사 내 각종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포털과 클라이언트, Wi-Fi 연결, 기사 제작 시스템 등에 문제가 생겨 전화하면 고객지원팀으로 일차적으로 연결된다. 고객지원팀은 수백명이 제기하는 고충을 직접 해결하거나 IT 개발부·운영부, 제작개발팀으로 전달해 원활하게 고충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를 받는 고객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고객지원팀이 나선다. 온종일 기사를 생산하는 '뉴스공장' 연합뉴스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종종 전화 너머로 들리는 억지스러운 요구에 지칠 때도 있지만, 고객지원팀 조합원들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전화 응대를 하면서 각종 불만을 들으며 때로는 '화살

받이'가 되기도 한다"며 "해결책을 바로바로 제공해줘야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어 스트레스가 적지 않지만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지원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 근무한다. 야간엔 IT 운영부 야근자에게 잠시 업무를 맡긴다. 회사 전체의 PC와 노트북 관리도 고객지원팀의 전담 업무다. 주기적으로 오래된 PC나 노트북을 점검해 교체해 주는 일도 한다. 연합뉴스 자회사인 연합 기술정보, 관리국 총무부와 연계해 기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성능과 휴대성, 애프터서비스 등을 고려해 PC와노트북의기종을선정한다.

현재 고객지원팀원 5명 중 건강 문제로 병가를 낸 조합원 한 명과 팀장 등을 제외한 조합원 2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사협약에 규정된 '필수 근무인력'이기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파업에

참여하는 식으로 격일로 파업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떴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파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파업 참여 동기를 전했다.

제작개발팀은 회사의 인사와 회계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자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비롯한 내부 시스템의 제작과 개발을 담당한다. 기사 제작 시스템 등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각종 회사 내부 시스템은 대부분 제작개발팀의 작품이다. 최근엔 새로 구성된 뉴스Y 시스템 프로젝트도 돕고 있다. 회사가 핵안보정상회의나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맡을 때에 제작개발팀이 관련 시스템과 서비스의 제작, 개발 업무를 맡는다.

제작개발팀은 지난해 10월 신설됐으나 아직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제작개발팀 조합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업무 담당자는 제작개발팀에 있으나 관련 요청은 IT

개발부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제작개발팀은 팀장을 포함한 6명이 모두 조합원이며 이중 노사협약에 따른 필수 인력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비(非)제작부서라서 마음처럼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루빨리 사장이 퇴진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국에서 그간 있었던 사내 민주화 훼손 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파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제작개발팀 조합원들은 "공정보도 훼손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낀 바는 없지만 여러 곳에서 우리 회사 연합뉴스가 욕을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에 뜨거운 지지를 보였다.